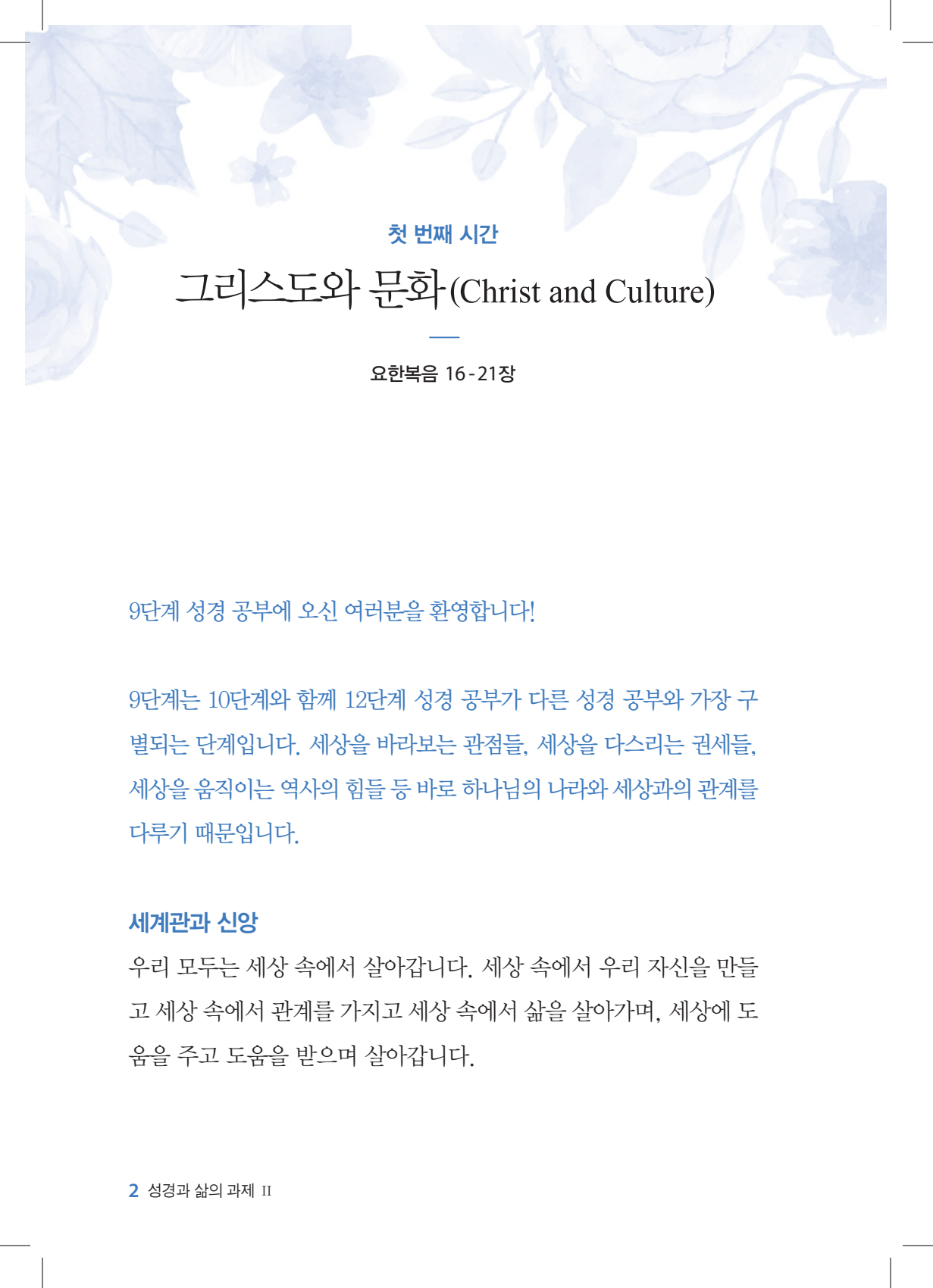


목차

세상이 묻고 말씀이 답하다!

01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2
02	구원과 세상	6
03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12
04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20
05	역사의 종말과 교회	25

Bible and
Mission 2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요한복음 16-21장

9단계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단계는 10단계와 함께 12단계 성경 공부가 다른 성경 공부와 가장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들,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힘들 등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계관과 신앙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세상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를 형성하고, 우리의 가치와 신앙을 형성하며, 삶을 만들고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 이를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도, 가치관도, 인간관도, 직업관도 모두가 세계관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근대 시대의 기계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예술적인 세계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과학자 뉴턴으로 대표되는 기계적 세계관이 지난 수백 년 동안 힘, 효율성, 원인과 결과와 같은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짐으로 아름다움과 조화, 창조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길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살기 때 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관계를 결정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문화

리처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성도들이 갖는 관계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대립하는 관계(against)입니다. 세상을 죄의 영향에 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은 세상을 거부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멀리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속하는 관계(of)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이 관계는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의 지식에 더 의존하며 세상을 교회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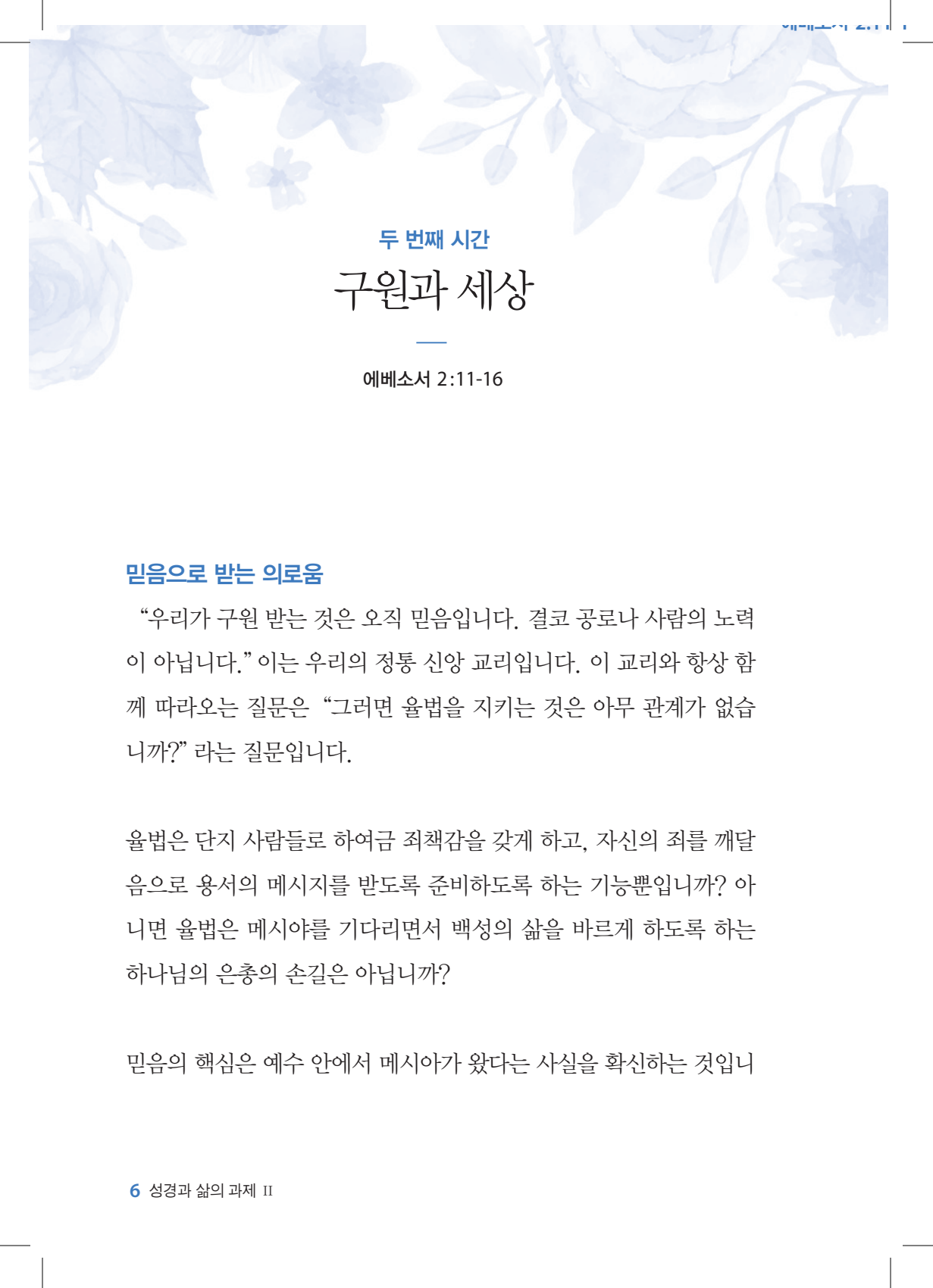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관계(above)로서 중세의 천주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면서 종교로

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종교의 수장이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표적인 정복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역설(parallel)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마치 기차의 철로처럼 함께 할 수 없기에 간섭도, 정복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transformation)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도 사랑하심을 깨닫고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의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대신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세상을 저주에서 건지기 위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

구원과 세상

에베소서 2:11-16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결코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정통 신앙 교리입니다. 이 교리와 항상 함께 따라오는 질문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받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기능뿐입니까? 아니면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백성의 삶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아닙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유대인들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부림친 이단은 유대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아울러 유대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이단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의 계약이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회적 형태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24절에 따르면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대인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초등교사(custodian)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의 길을 통과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학교 선생(schoolmaster)로 번역했기에, 이방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율법의 상세한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선 율법의 멍에를 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바울이 말한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몰랐기에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것을 모른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앞장 선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분명한 선포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는 다른 사도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지식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교회의 청지기로 삼으셨고(3:2),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3:3). 이 비밀이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엡 2:11-16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적대감이 해소된 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절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ktisis)은 새로운 인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말하며 동시에 전 우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정치학

이번 과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요더라는 학자가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분의 책이 이번 과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가 사회의 흐름에서 탈락하고 반문화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결코 세상의 흐름에 무관하거나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거짓을 지적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 헌신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베들레헴과 로마가 무슨 관계가 있는냐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도록 하는 몇 가지 입장들이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간기(Interim)라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윤리는 중간기의 윤리로서 곧 역사가 끝이 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의 욕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나 폭력의 거부 등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가르침은 농경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입장입니다. 농경 시대의 윤리는 당연히 오늘날의 윤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따릅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위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어떻게 도시 중심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와 제자들이 살았던 환경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였기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할 수도 없었기에 지극히 단순히 가르침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가르침은 영적이었기에 역사와 세상에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어느 시대건 항상 기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때에도 영적인 면에 매달리는 윤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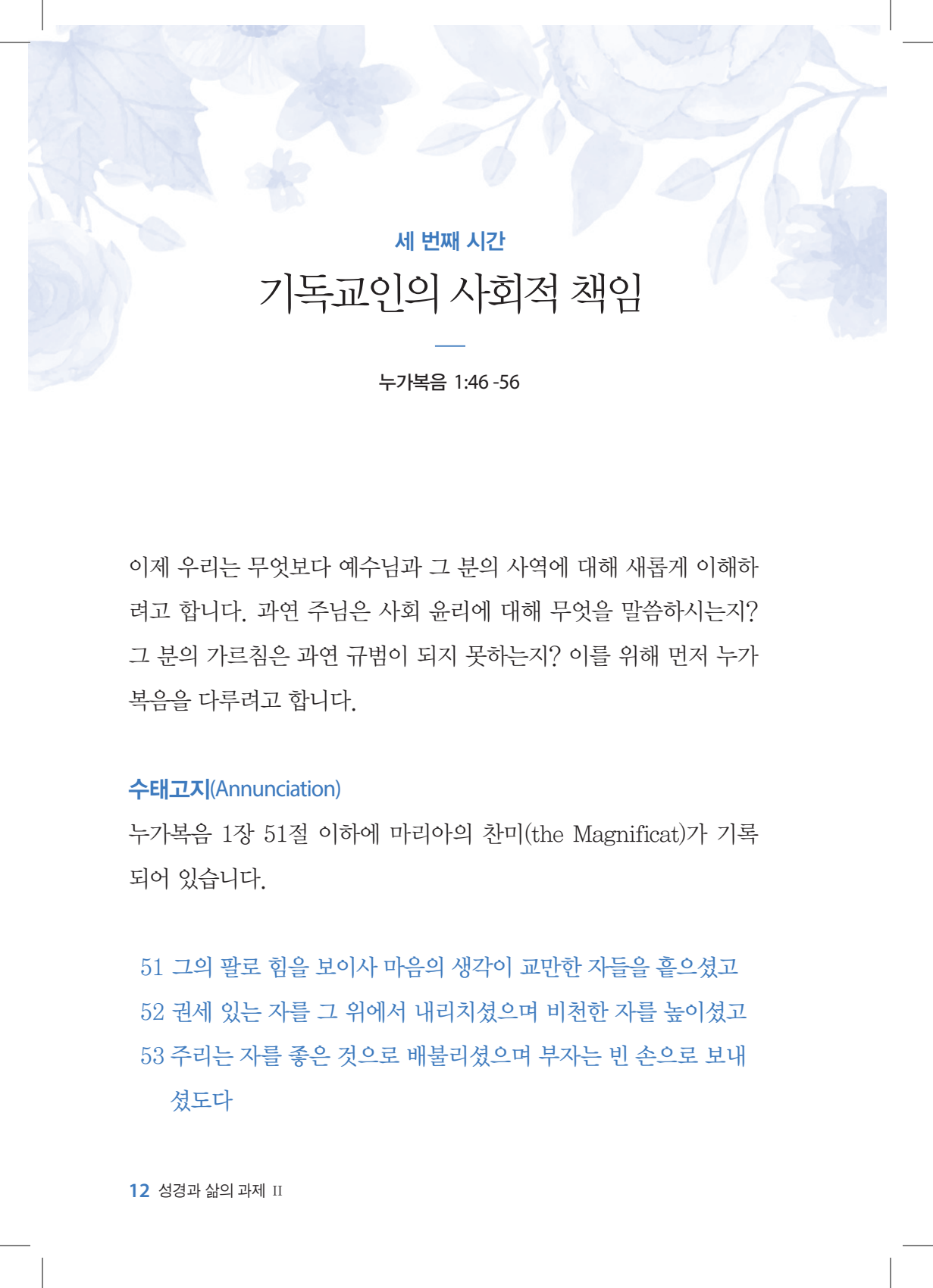
다섯 번째로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절대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인간의 가치는 전혀 연결 고리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주된 관심은 생명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의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케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의와 평화와 기쁨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이차적으로 행위를 강조했기에 윤리적인 문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울은 사회 제도를 존경했고 여자와 노예의 복종을 말했으며, 로마 정부에 순종하기를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세상의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부터 빌려야 합니다. 즉, 세상의 상식이나 자연의 법칙, 또는 유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누가복음 1:46-56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은 사회 윤리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가르침은 과연 규범이 되지 못하는지? 이를 위해 먼저 누가복음을 다루려고 합니다.

수태고지(Annunciation)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미(the Magnificat)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
셨도다

이 찬미에 따르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레 요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눅 3:9). 복음서는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변화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대개의 경우 이러한 본문들을 본문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3:21~4:14에는 세레 사건과 광야 시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레 받으실 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시 2:7과 이사야 42:1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은 왕의 즉위식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으로서 백성을 먹일 업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제 이 아들은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팔레스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시험 사건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요 물질적인 문제로만 여기지만 문

맥상으로 보면 이는 왕으로서의 메시야가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 앞에 절하라는 유혹은 강하게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은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만들려는 계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miracle worker)의 이미지는 주님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신 이미지입니다. 메시야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평화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에 따르면 메시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에 따라 종교를 개혁함으로 만물을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말 3:1-3).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시작하지만 누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희년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년의 의미(Jubilee)

희년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쉬게 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빚을 면제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종을 놓아주는 일이며, 네 번째는 각자가 자신의 토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 의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땅을 쉬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25장 20-21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26년으로서 실제로 희년이 선포된 해입니다. 이 때 제자들에게 염려가 다가와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29-3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면제와 종의 해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서 주님의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debt)를 면제해준 것처럼 우리 빛을 면제해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헬라 단어 ‘opheilema’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금전적인 빛을 말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작인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도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이웃의 빛을 면제해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빚도 면제 받습니다. 희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은혜를 실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니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이며,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종의 비유입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

희년이 되면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일만 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빚

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점점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결국에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희년이 되자 주인은 모든 빛을 탕감했고 온 식구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빛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도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가 힘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자 편법이 생겼습니다. 희년이 가까이 오면서 주인들은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도 마비될 것입니다. 이 때 랍비들이 해법을 찾습니다. 채권자는 법정에 전가함으로써 빛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즉, 율법이 금지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 이전에 공적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the action formalized the tribunal) 이 제도를 프로스볼(prosboul)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희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모든 백성은 경제적인 빛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눅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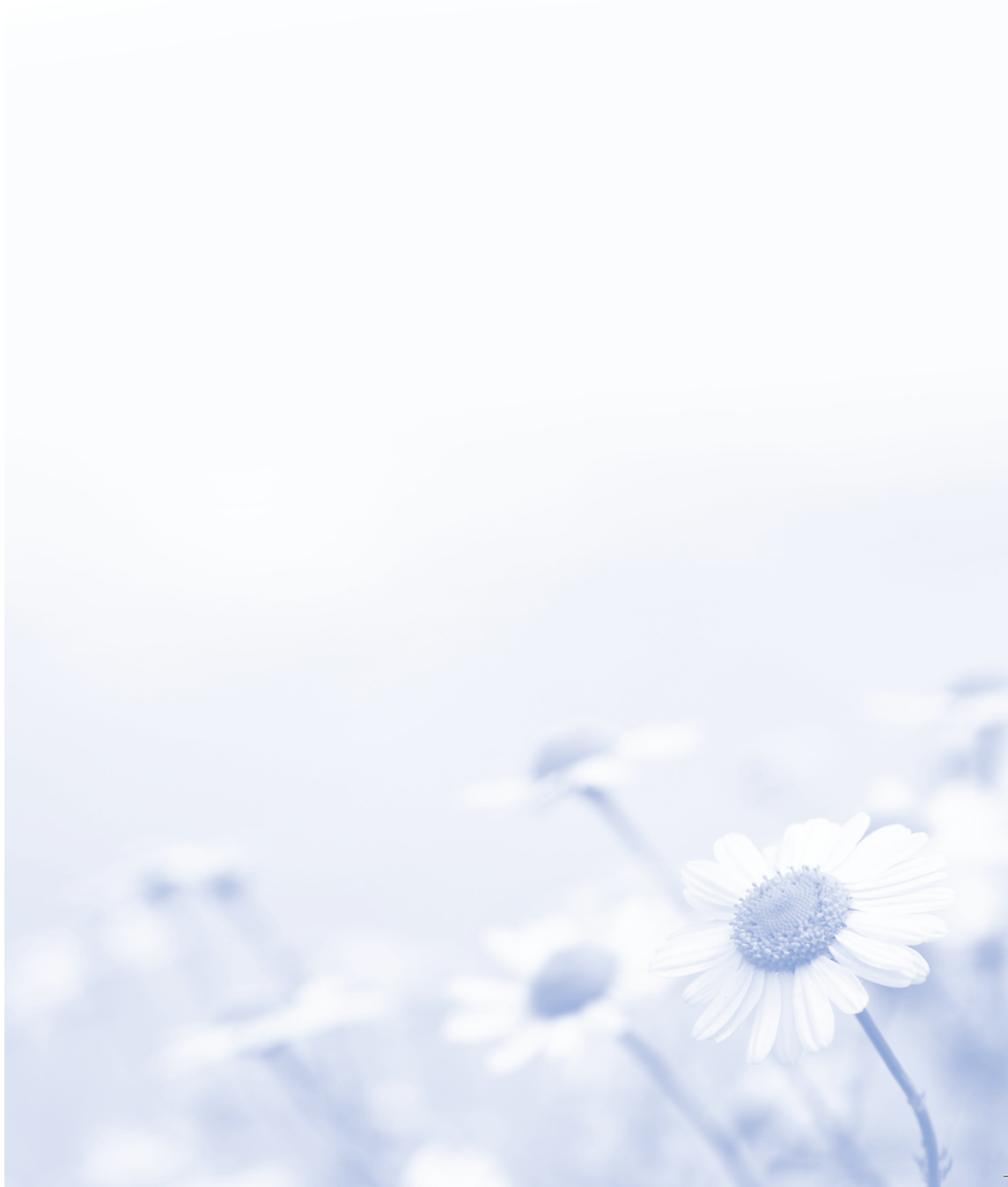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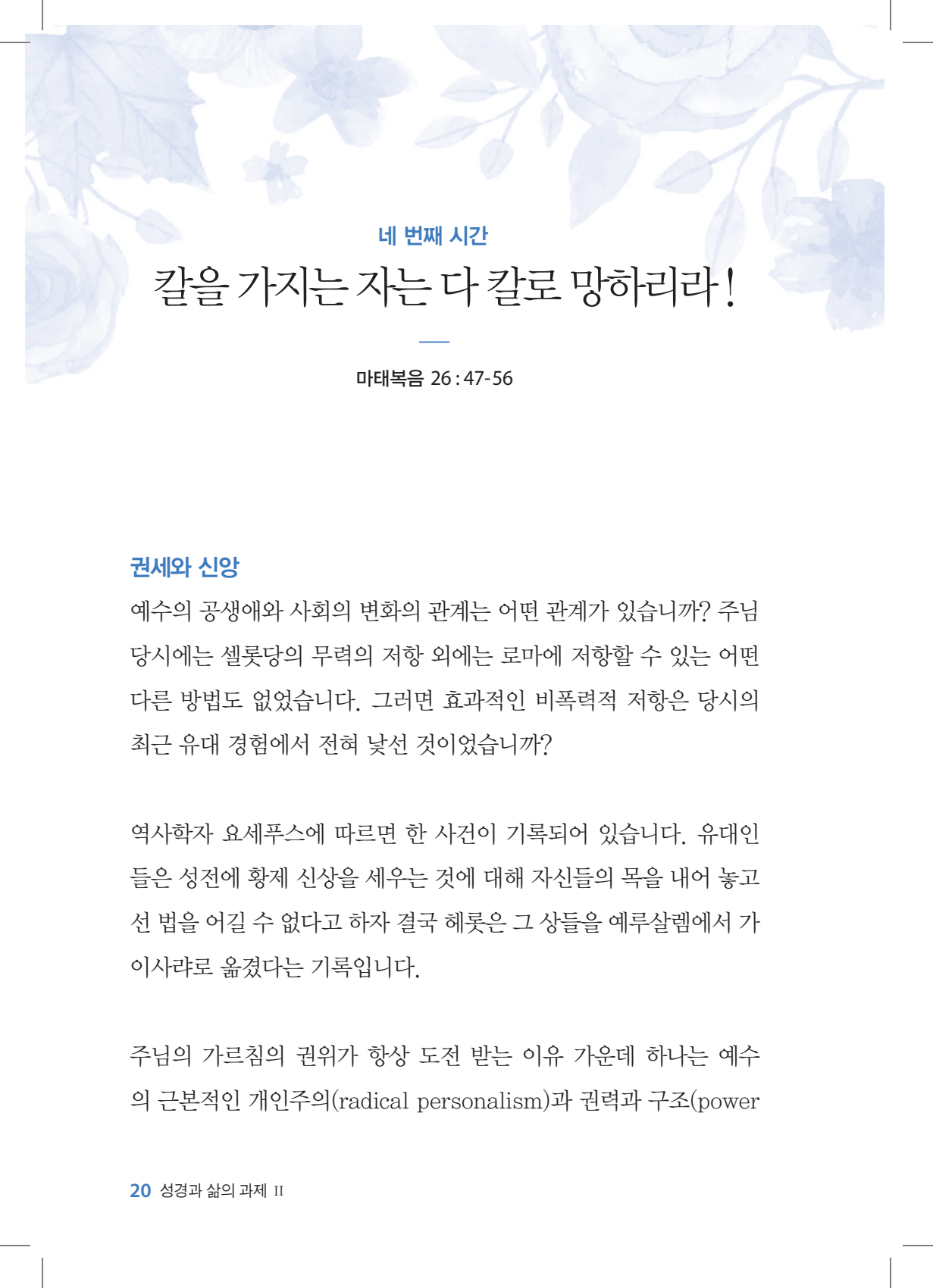
또 다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헤롯의 독재로 인해 대

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는 주인의 부재로 인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인은 여러 계층의 청지기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제했습니다. 중간 대리인들은 세를 높여서 돈을 챙겼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돈을 가졌지만 대신 이웃과의 우정과 존경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고 책망했습니다. 청지기가 이를 알자 죄책감에 빠졌고 아울러 자신은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에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빚진 자에게 본래의 빚대로 청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거짓도 드러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재분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재산은 오직 땅과 가축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발적인 가난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인지, 일부 성직자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직자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에게는 구제 차원이 되었고 성직자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우 구제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십일조에 만족했지만 이는 본래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경우 십일조는 쉬운 실천, 자기 의를 위한 도구

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따를 말씀이며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마태복음 26:47-56

권세와 신앙

예수의 공생애와 사회의 변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당시에는 셀롯당의 무력의 저항 외에는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비폭력적 저항은 당시의 최근 유대 경험에서 전혀 낯선 것이었습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황제 신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목을 내어 놓고 선 법을 어길 수 없다고 하자 결국 헤롯은 그 상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겼다는 기록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항상 도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근본적인 개인주의(radical personalism)와 권력과 구조(power

and structure)의 갈등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중간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배척당했고, 때로는 산상 수훈의 가르침이 너무 고상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반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는 루터 이후에 실존주의와 함께 현대의 이기주의에 의해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사회의 구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제국이 됨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었을 때, 교인들은 다른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독교는 수적인 면에서나 영향력의 면에서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사회적인 면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substance)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형태(form)에 대해선, 즉 권세나 구조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지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세나 구조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뜻을 알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권세(power)라는 말은 권위(authority)라는 말과 구별되기도 하고, 합쳐

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의 권세

바울은 정사와 권세(principalities)와 정사(power)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보좌와 통치(throne and domin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두가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주적인 용어인 천사나 높이, 깊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나 지식과 같은 종교적인 용어도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조(struct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건축가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쓰이고(예를 들어 피아제의 인지 구조) 종교적인 영역(신앙의 구조)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겠습니까?

최근의 신약 성서연구에 따르면 바울이 사용한 천사나, 마귀 또는 권세 등의 단어는 고대 시대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 이는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개인주의적 신앙 영향 때문에 바울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일어나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우

리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나 제도로써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학자들도 세상의 죄악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러한 단어들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담긴 권세의 기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 15-17)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느니라’ 라는 말의 본래 뜻은 오늘날 체제 또는 제도(system)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창조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담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 만물이 체계화되어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어서 유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는 우주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의 권세들(powers)은 대부분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기에 사회나 자연, 우주는 이러한 질서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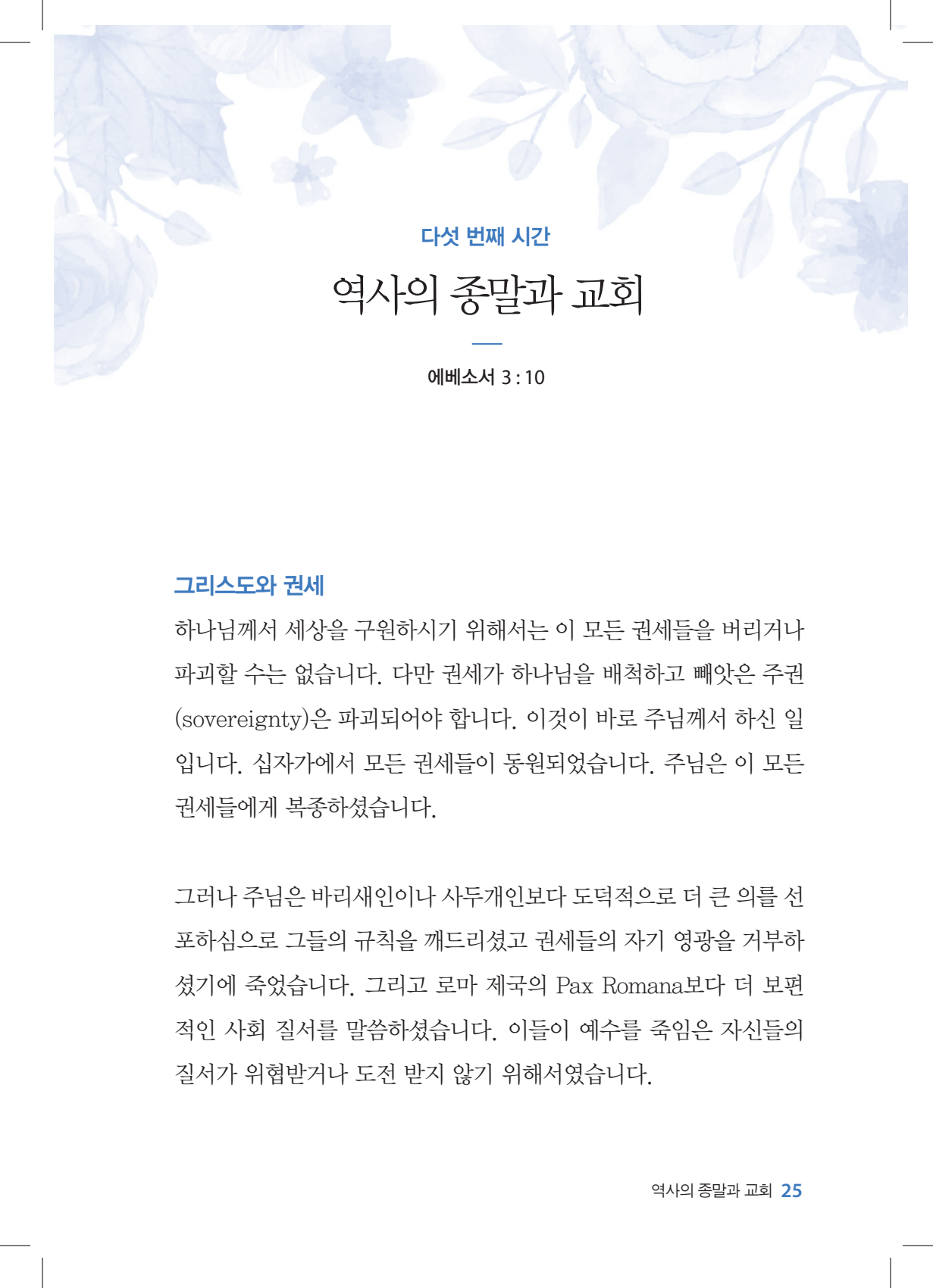
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심히 아름다웠던 것은 질서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

이제 권세들은 죄로 물들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적 창조 역사의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하지만 타락에도 불구하고 권세들은 여전히 질서의 사명을 제한적으로 감당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권세는 비록 타락했지만 혼란보다는 낫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방의 나라에서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 근본 사실을 말합니다.

- a)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 b) 권세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 c) 그러나 권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역사의 종말과 교회

에베소서 3:10

그리스도와 권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권세들을 버리거나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세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빼앗은 주권 (sovereignty)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큰 의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규칙을 깨드리셨고 권세들의 자기 영광을 거부하셨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Pax Romana보다 더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임은 자신들의 질서가 위협받거나 도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이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타락한 피조물들의 반역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순종하심은 진실로 회복된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나 질서, 제도에도 종이 아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권세

교회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권세에 대한 바른 제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후로 이 땅의 역사에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능력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셀롯당의 유혹도, 마카비의 국수주의의 유혹도, 헤로디아의 협력도 거부합니다.

그러면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인 됨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권세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다만 교회는 권세에 의해 유혹받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회는 회복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경제적 인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작은 그룹에서 참된 관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소그룹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나누며 상호도움을 주며 함께 영적인 갱생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의 행함을 나눈다면 그 어떤 사역보다 큰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단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거나 한 개인을 도와서 더 나은 선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의 성취를 알려야 합니다(엡 3:10). 교회의 선포는 단지 개인의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블룸 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정복자라는 사실은 영원히 정착되었다. 우주는 그의 것이다(Dass Jesus siegt ist ewig ausgemacht. Sein ist die ganze Welt!).”

어린 양의 전쟁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기록 속에서나 바울의 기록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의 위치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역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계시록은 가장 먼저 4장에서 5장에 걸쳐 일곱 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말합니다. 인으로 봉해진 두 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의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의미가 없음은 더 더욱 아닙니다. 역사의 의미를 모를 때 인간의 삶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안에서 일하셨고 미래에도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신앙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역사의 의미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대한 무력이 아니라 고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양이 자신을 찬양하는 인간 역사의 나머지 부분과 관계하느냐입니다. 대답은 예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초대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초대 교회의 고백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관심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반드시 계시에 기초해야 하지 우리의 사고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찾아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관점이 기독교인이 역사의 흐름을 보는 관점입니다.

양의 전쟁

“어린 양이 죽었으며 우리는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리스도’ 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으로서 이는 주님의 사역이 정치적 관심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 소망을 이루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관(crown)을 버리고 십자가(cross)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헌신으로서 전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셨으며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구속적이거나 순교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평화주의(pacifism)와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평화주의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비폭력적인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하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인하신 것은 모든 폭력이 아니라 강한 자가 타인의 존귀함을

침범하는 목적입니다.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선에 대한 향한 궁극적인 관련과 승리는 결코 계산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왜 기독교회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대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습니까? 이는 진리와 선함에 대한 왜곡과 오래로 인해 전쟁을 일으켰고 십자가 전쟁의 뿌리는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거나 이방 종교 때문이 아니라 성경 신앙의 왜곡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소수자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한 가운데에서 거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와 먼 미래의 종말간의 시간적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미래를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밧모 섬에서 본 미래는 바로 하나의 체계로서의 우주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행동하며 서로와 연결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Memo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_ 골로새서 1:20



Memo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_ 골로새서 3:2,3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Memo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_ 고린도전서 1:30



Memo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_ 고린도전서 1:18



12단계 개관

- 1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단계 성경의 기본 I
- 3단계 성경의 기본 II
- 4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단계 성경과 영성
- 8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단계 성경과 사회 I
- 11단계 성경과 사회 II
-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